



담당부서

기초교육원
행정지원팀

담당자

최인형 (880-5690)

2015. 8. 31.(월)

제목: 선한 인재 양성을 위한 '제1회 서울대학교 관악토론탐안마당' 개최

○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하는 대회인 "관악토론탐안마당"이 2015년 11월 18일(수)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예선 신청서 및 입론문을 접수받고 있음.

○ 취지 (붙임 1 '취지문' 참조)

- 서울대학교는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를 지닌 '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양교과목 신설 및 다양한 활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본 대회는 서울대 학부생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태도와 관련된 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함으로써 토론 준비와 대회 참가 과정을 통해 윤리적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대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함

○ 특징

- 청중 질문과 평가 제도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함
- 말하기뿐 아니라 듣기까지 포함한 소통 및 교감능력의 향상을 도모함
- 일반 논제토론과 독서토론 형식을 결합한 독자적 토론 모형을 개발함
- 토론 주제와 관련된 참고도서 3종 및 참고영상 1종을 지정하여 토론 준비과정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대립각을 세워 상대를 논파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대와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지향함
- 본선 토론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말하기와 토론' 수업과 신입생 교육자료로 활용

○ 대회 일정 개요

일정	구분	대상	내용
2015. 7. 27.(월) ~ 9. 30.(수)	예선접수	예선신청자	신청서 및 입론문 접수 (접수처: 관악토론탐한마당 홈페이지 http://debate.snu.ac.kr)
2015. 10. 7.(수)	본선 발표	본선 참가대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2015. 10. 12.(월)	본선 참가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본선 참가대상	장소 추후 공고
2015. 11. 18.(수)	토론 대회 (10:00~17:00)	본선 참가대상 및 청중평가단	오전: 16강, 8강, 4강 경기 오후: 준결승, 결승 경기 장소: 기초교육원 대강당 및 강의실 등

○ 예선 및 본선 진행 방법

가. 예선

- 일정: 2015. 7. 27.(월)~9. 30.(수)
- 접수처: 관악토론탐한마당 홈페이지 (<http://debate.snu.ac.kr>)
- 토론 주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 지원 자격: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 팀 구성: 최소 2명, 최대 5명까지 구성 가능.

본선 진출 시 토론 참여는 팀당 2명으로 제한됨

- 접수 방법: 접수기간 내에 예선 신청서와 예선 입론문 제출
- 입론문 작성 방식: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먼저 개진한 뒤, 참고도서 및 참고 자료 중 한 종을 택하여 관련 논의를 도출하고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비판적으로(혹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의함. 이 입론문 작성 과정 자체가 독서를 통한 논제 이해 및 논의 도출의 교육적 활동이 되도록 함.
- 참고자료: 『고르기아스』(플라톤 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박완서 저), 『이타적 인간의 출현』(최정규 저), 영화 『올지마 톤즈』 총 4종

나. 본선

- 일정: 2015. 11. 18.(수)
- 장소: 기초교육원 대강당 및 강의실 등
- 대상: 예선 심사 통과자
- 진행 방식: 토너먼트 (오전: 16강, 8강, 4강 / 오후: 준결승, 결승)
- 경기별 진행 방식: 각 팀 입론 (각 4분) - 각 팀 상호 질의응답 (6분) - 각 팀 반론(각 4분) - 자유토론(12분) - 각 팀 최종발언(3분)

○ 시상 계획

- 대상(1팀, 200만원), 금상(1팀), 은상(2팀), 동상(4팀), 장려상(8팀) 등 총 16팀 시상 예정

붙임 1. 관악토론한마당 취지문 1부.

2. 관악토론한마당 포스터 1부.

제1회 관악 토론 한마당 대회취지문

토론 주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서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우리 사회, 국가, 심지어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의 상황에 종종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함에도 그러한 선택이 내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일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될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인적 없는 어느 새벽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부주의로 신문배달을 하던 청년을 치었고 중상을 입은 그 청년이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상황이라고 합시다. 마침 사고가 벌어진 길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CCTV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뺑소니를 친다고 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당신이 그 청년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당신의 과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의 이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뺑소니를 치지 않고 청년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도대체 올바르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올바른 일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닐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고려대 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현 씨는 도쿄 신오쿠보 역에서 술에 취한 일본인이 선로로 추락한 것을 목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 그 일본인을

구조하려다가 그만 달려오는 전철에 치여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수현 씨와 같은 의인(義人)들의 삶을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름이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 “올바른 것”으로 공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라시마코스의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진정한 가치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되지 않았다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이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제1회 관악 토론 한마당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제1회
관악토론
한마당

참가대상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접수기간	2015년 7월 27일(월)~9월30일(수) *예선 입론문 마감
본선대회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0:00~오후 5:00
접수 및 문의	관악토론평마당 홈페이지(debate.snu.ac.kr)
토론주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참고도서	《고르기아스》(플라톤 저),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박완서 저), 《이타적 인간의 출현》(최정규 저)
참고자료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시상	대상(1팀) 200만원, 금상(1팀) 100만원, 은상(2팀) 각 50만원, 동상(4팀) 각 30만원, 장려상(8팀) 각 20만원

- 예선 접수 시 입론문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각 팀 당 참고도서 1권을 배부합니다.
- 각 도서 당 선착순 30팀 한정.
- 예선과 본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